Kotra Executive Brief 10-031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년 수출전망'

(2010.11.30)

[목차]

요약..... 1

Ⅰ. 2011 수출전망 개요..... 2

Ⅱ. 지역별 수출전망..... 5

Ⅲ. 품목별 수출전망.....21

Ⅳ. 주요품목 외 지역별 수출 유망 품목.....27

작성 : 통상조사팀 최원석 과장(jmorning@kotra.or.kr)

감수 : 통상조사처 한선희 처장(shan@kotra.or.kr)

요 약

□ 2011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5,200억불 전망

○ 사상 최초 5천억불 돌파 및 무역규모 1조불 달성 예상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불, %)

년 도	2008	2009	2010	2011
금액(증감률)	4,220 (13.6)	3,635 (△13.9)	4,670 (28.5)	**5,200 (11.3)**

주 : 증감률은 전년대비

자료원 : KOTRA 해외 KBC (바이어, 주재상사 등 13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세계 경제성장 불안** 및 '10년 수출 대폭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 對신흥국-선진국간 수출 증가율 뚜렷한 격차

○ **對중화권(13.5%),** 동남아·대양주(11.8%), 서남아(20.1%), 남미(15.7%), CIS(18.1%) 등 **신흥시장 전반이 호조**

○ 구주(7.0%) 및 북미(7.9%), **일본**(3.3%) 등 **對 선진국 수출**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가계소득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 예상**

□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신흥시장이 증가세 주도

○ 내수시장 성장, 정부주도 인프라 투자 증가, 외투기업 생산 확대로 **아시아 신흥 시장이 수출 증가세 주도**

-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기여도 60.2%로 상승 전망

□ 자동차 및 부품·소재류가 수출 견인

○ 자동차 및 부품은 한국차 인지도 상승과 신흥시장 중심의 수요 증가, IT 부품·소재류는 프리미엄 제품군에서의 강세와 시황 개선에 힘입어 호조 전망

○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원부자재 및 에너지도 글로벌 경기 호전과 원자재가 상승이 맞물려 호조 전망

○ 컴퓨터류,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산 비중 지속 확대로 부진 전망

Ⅰ. 2011년 수출전망 개요

□ 2011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5,200억불 전망

○ **사상 최초 5천억불 돌파** 및 **무역규모 1조불** 달성 예상

* 최근 10년간 수입/수출 비중은 88~103%(평균 94%) 수준

○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및 '10년 수출 대폭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큰 폭 둔화**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불, %)

년 도	2008	2009	2010	2011
금액(증감률)	4,220 (13.6)	3,635 (△13.9)	4,670 (28.5)	**5,200 (11.3)**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자료원 : KOTRA 해외 KBC (바이어, 주재상사 등 13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 對신흥국-선진국간 수출 증가율 뚜렷한 격차

○ **對중화권(13.5%),** 동남아·대양주(11.8%), 서남아(20.1%), 남미(15.7%), CIS(18.1%) 등 **신흥시장 전반이 호조**

○ 구주(7.0%) 및 북미(7.9%), **일본**(3.6%) 등 **對 선진국 수출**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가계소득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 예상**

□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신흥시장이 증가세 주도

○ 내수시장 성장, 정부주도 인프라 투자 증가, 외투기업 생산 확대로 **아시아 신흥 시장의 수출 기여도 상승**

- 對아시아(중화권, 동남아대양주, 서남아) 지역 수출의 전체 수출 증가 기여도가 '10.1-10월 52.6%에서 '11년 60.6%로 상승 전망
- 반면, 對선진시장(북미, 유럽, 일본) 기여도는 27.3%에서 18.1%로 하락 전망

< 지역별 2010-2011 수출 전망 >

(단위 : 억불, %)

지 역	2010		20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670**	**28.5**	**5,200**	**11.3**
중화권	1,586	36.7	1,801	13.5
동남아대양주	662	15.5	740	11.8
유럽	615	18.8	658	7.0
북미	534	30.0	576	7.9
중동	274	15.2	313	14.0
일본	279	28.6	289	3.6
중미	217	34.0	236	8.8
남미	160	52.1	185	15.7
서남아	142	40.0	170	20.1
아프리카	106	21.9	120	13.2
CIS	95	55.1	112	18.1

주1) 증감률은 전년대비
주2) 북아프리카지역은 '중동'에 포함
자료원 : KOTRA 해외 KBC (바이어, 주재상사 등 13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2011년 지역별 수출증가 기여도* 변화 전망>

지 역	중화권	대양주	동남아	유럽	북미	중동	서남아	남미	중미	CIS	아프리카	일본	계
'10.1-10	40.0	8.6	9.2	12.3	3.7	4.0	5.6	5.4	3.4	2.0	5.8	100.0	
'11 전망	**40.5**	**14.7**	**8.2**	**8.0**	**7.3**	**5.4**	**4.7**	**3.6**	**3.2**	**2.6**	**1.9**	**100.0**	

주)기여도 = (△對해당지역 수출증가액 / △전체 수출증가액) X 100
자료원 : KOTRA 해외 KBC (바이어, 주재상사 등 13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자동차 및 부품소재류가 증가세 견인

○ **자동차 및 부품**은 한국차 인지도 상승과 신흥 시장 중심의 수요 증가, **IT 부품·소재류**는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강세와 시황개선에 힘입어 호조 전망

○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원부자재 및 에너지류도 글로벌 경기 호전과 원자재가 상승이 맞물려 호조 전망

○ **가전, 섬유 및 의류**는 선진국 소비회복 지연, 바이어의 보수적 구매패턴 유지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

○ **컴퓨터류,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산 비중 지속 확대로 부진 전망

<주요 품목별 2011년 수출 전망>

품목명 (MTI코드)	'10 연간 전망 ('09 대비 증가율)											
	전체	중화권	대양주	유럽	북미	중동	일본	중미	서남아	남미	C-IS	아프리카
일반/정밀기계 (71,72,73,75,79)	↑	↑	⇧	↑	↑	⇧	=	↑	⇧	⇧	⇧	↑
자동차 (741)	⇧	⇧	⇧	↑	↑	↑	=	⇧	⇧	⇧	⇧	⇧
자동차부품 (742)	⇧	⇧	⇧	⇧	⇧	⇧	⇧	⇧	⇧	⇧	⇧	=
평판디스플레이 (836)	⇧	⇧	⇧	↑	↑	=	=	↓	⇧	⇧	=	↑
반도체 (831)	⇧	⇧	⇧	↑	↑	↑	↑	=	⇧	⇧	↑	=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812)	↓	⇩	=	↓	↓	↑	=	=	⇩	↑	↑	↑
가전 및 부품 (82)	↑	↑	⇧	=	↑	↑	↑	=	⇧	↑	↑	=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813)	=	=	↑	=	=	↓	↑	↑	=	=	=	=
섬유 및 의류 (4)	↑	↑	⇧	↑	↑	↓	↑	↓	↑	↑	↑	↑
철강제품 (61)	↑	↑	⇧	↑	↑	⇧	↑	↑	⇧	⇧	⇧	↑
석유화학 (21)	↑	↑	⇧	⇧	↑	↑	=	↑	⇧	⇧	⇧	↑
석유제품 (133)	⇧	⇧	⇧	↑	⇧	=	↑	=	⇧	=	↑	=
선박류 (746)	↑	=	↑	↑	↓	⇩	↑	=	⇧	↑	=	↓

주) 대폭증가(10% 초과) : ⇧ / 소폭증가(3~10%) ↑ / 현상유지(0~3%) : = / 소폭감소(0~-10%) : ↓ / 대폭감소(-10% 미만) : ⇩

자료원 : KOTRA 해외 KBC (바이어, 주재상사 등 13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Ⅱ. 지역별 수출 전망

가. 종합

□ 對 중화권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세 견인

○ **중국의 경제성장 및 수출 둔화 전망**에도 불구, 對 중화권 수출은 13.5%의 **높은 증가세 전망**

○ **내수 소비 시장 진출 확대**가 對中 수출 증가 주도

-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소비패턴 고도화**
- 위기 시 대대적 재정지출, 산업 이전으로 **내륙지역 구매력 대폭 증가**

○ 정부 육성 **'7대 신흥전략산업'** 등 **신성장 부문의 수입 수요 확대**

□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의 **소득증가와 유통망 현대화**로 한국산 **중·고가 내구소비재 수요 확대**

○ 한국기업을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 외투기업의 생산 증가, 대형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본격 재개**로 관련 장비 및 원부자재 수출 호조 전망

□ 對 선진국 수출 완만한 증가세

○ 소비 회복 지연, 재정지출 및 소비진작책 축소,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소 상존**

○ 그러나 불황기 공격적 시장 공략과 신제품 출시로 **브랜드 이미지가 대폭 제고**되었으며 디지털테크, 자동차 등 **경기회복이 빠른 분야에서 한국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글로벌기업의 해외조달 확대**와 한-EU **FTA 잠정 발효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도** 호조 요인

나. 중화권 [13.5% 증가]

□ (중국) 거시경제지표 약세 예고

○ 경기부양 **4조 위안 프로젝트 마감**단계 진입, **경기과열 억제책** 시행에 따라 2011년 경제성장률은 '10년의 10%보다 낮은 **8-9% 수준 전망**

- 부동산 버블,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통화긴축 기조 지속 예상

○ 선진국 소비 회복 지연, **중국산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둔화 전망**

- **원자재가 및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이 가격경쟁력 약화 초래
  → 한국의 對中 가공무역 원부자재 수출 부진 요인

○ 성장둔화세에도 불구, **민간소비**는 '10년과 비슷한 **18~19% 증가** 전망

□ (중국) 내수 소비 증가가 對中 수출 증가세 견인

○ 내륙 지역 소비 증가

-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대대적 인프라 투자, 산업 이전** 등으로 **2·3선 도시를 포함한 내륙지역 구매력 대폭 증가**

* 물가, 주거비용 차이로 1선 도시에 비해 2·3선 도시 가처분 소득이 높음

- 2015년에는 **내륙 도시 부유층이 전체의 75%** 차지 전망

* 연간 가계수입 25만위안 이상을 부유층으로 보며 중국전체로 160만호('08) →400만호('15)로 증가 전망 (매켄지)

○ 소비 패턴 고도화

- 최근 **'건강한 삶'**과 **'자기 만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가구·인테리어, 영·유아용 전문 제품, 고급의류 소비가 급속 증가

* 특히 부유층은 럭셔리(luxury)카 등 브랜드로 신분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함

- '가격이 비싼 제품이 품질도 좋다'는 인식 확대로 **고가·고품질 소비재 수출 기회 증가**

□ (중국) 금융위기 후 부상 산업에 대한 수출 기회 확대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10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판매**는 각각 **1천 7백만 대** 전망

* '09년 1천 3백만 대를 돌파, 일본(생산), 미국(판매)을 제치고 세계 1위 차지

- '10.1-10월 중 **對中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각각 **92.4%, 44.3% 증가**했으며 소득수준 상승, 한국산 인지도 제고로 호조 지속 전망

* 對中 자동차 수출 추이(억불) : 8.2('07) → 9.5('08) → 8.9('09) → 12.8('10.1-10)

○ 신흥 전략 산업

- 정부는 에너지절약형환경보호, 정보기술, 생물의약, 첨단장비제조, 新에너지, 新소재, 新에너지자동차를 **7대 신흥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

* 7대 전략산업의 GDP 비중은 현재 2% 미만이나 '15년 8%, '20년 15%까지 상향 계획

- **200여개 산업기금**을 조성, 최소 **1천억 위안**을 신흥전략산업 **초기 기반 형성에 투입**할 예정으로 **새로운 수출기회** 지속 창출 기대

* 신흥전략산업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향후 10년간 산업전략 방향이 결정되므로 그 영향력 면에서 '두 번째 4조 위안 프로그램'으로 불림

□ (대만) 글로벌 경기 회복, ECFA 효과로 對대만 수출 호조

○ 신흥경제권 중심의 글로벌 경기 회복세, 양안경협 심화와 ECFA 발효로 대만의 수출 여건 개선

- **'11년 1월부터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발효**

* 중국이 대만에 우선 개방하는 품목은 농산품(18), 석유화학제품(88), 기계류(107), 방직제품(136), 수송장비(50) 등 539개임

○ 대만의 생산·수출 호조 및 **R&D 확대,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투자 확대**에 따라 부품소재, 전자제품 제조장비 등 수출 호조 전망

□ (홍콩) 중국 내수 호조에 따른 동반 호조

○ 한국의 **對홍콩 수출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어 중국 내수 소비 및 관련 생산 호조에 따른 동반 호조가 기대됨

다. 동남아·대양주 [11.8% 증가]

□ (동남아) '11년 경제 및 대외무역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비해 둔화될 것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오히려 가속화** 전망

- 각국의 **실업률이 감소추세**에 있고, 소득 및 소비 증가로 **투자 수요가 활발**해지고 있어 한국 수출에 기회요인이 됨

○ 아세안 각국 대외무역이 2010년 중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됨

-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의 **제조업 아웃소싱지역 전환** 확대도 아세안 교역확대에 일조

□ (동남아) 각국 정부의 인프라 확충 투자 지속

○ 경기부양을 위해 대폭 늘어난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는 **회복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소요 자재 수출 및 건설프로젝트 입찰 기회 다대

- **(인니)** 2차 10,000㎿ 발전시설 증설, **(말련)** 5개 지역 신규 개발사업 등

□ (동남아) 현지 투자진출 기업의 조업 확대

○ **POSCO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자진출**로 대표되는 한국 철강 관련 업체의 현지생산 확대로 관련 원부자재 교역 증가

○ IT, 가전부문의 전 세계적 수요 상승에 따른 외자계 기업 생산 증가

□ (동남아대양주)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 가전분야의 **평판디스플레이** 제품,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한국 제품의 브랜드이미지, 품질,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 상승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판매 증가에 따른 부품 등 연계 수요 확대

□ (동남아대양주) 역내 통화 강세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역내 주요 교역국 **통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입 구매력 상승**

* 단, 베트남 동화는 무역적자 누적과 물가불안정으로 가치 하락

라. 서남아 [20.1% 증가]

□ 인도경제 호조에 힘입은 성장세 지속

○ 인도는 2011년에도 **8% 이상 고도성장을 유지**할 전망

- 제조업 분야 투자 확대에 따라 대인도 수출 주력 품목인 자본재, 산업용 원부자재 부문 호조 지속 예상

○ 경제 성장에 따른 **새로운 소비재 수요가 다양하게 창출**되며 자동차, 가전 등 수입 수요 증가

□ 서남아 시장 전반에 걸친 산업재 수요 확대

○ 인프라 개발 확대, 내수 시장 성장 및 해외 수출시장 여건 개선으로 **제조업 투자 확대 및 기계류 수요 증가**

○ 꾸준한 **통신, 발전 인프라 부문 투자로 관련 기자재 수입 수요 지속 증가**

- 인도는 '11년 3G 본격 서비스 개시 및 '12년 4G 통신 도입 추진
- 현지 기술력으로 생산이 어려운 발전용 기자재(초임계압보일러 등) 수요 다대

○ **자동차산업, 건설업 성장**에 따른 산업용 원부자재 수요 증가

* 인도 승용차 시장은 30~40%의 속도로 고성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철강판 자체생산 능력 부족으로 수입에 대부분 의존

□ 서남아 전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 **(인도)** 전력, 통신, 도로, 철도 및 송유관 등을 중심으로 2011/12 회계연도 중 5천억달러 투자 예정

○ **(파키스탄)** 홍수 이후 사회간접자본 복구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

○ **(방글라데시)** 최초로 민관합작 인프라 투자방식을 도입하고, '11년 전력, 에너지 및 교통인프라 건설 예산 대폭 증액

○ **(스리랑카)** 내전 종식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확충공사 확대

□ (인도) 소비 시장 고도화

○ 최근 인도 소매 시장은 **기업형 유통망이 연평균 40~50%씩 급성장**하며 영세 유통망 대체

-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과 맞물려 **외국 브랜드 유입 및 수입 증가**

○ **대규모 모터라이제이션* 진입**

* 자동차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판매가 급상승하는 시기

- **소득 증가에 힘입은 자동차 구매의 폭발적 증가**로 부품, CKD 반제품 등 수입 급증
- 현지 조립공장형 외국기업 투자 증가, 신모델 개발 확대로 **신규 부품 수입선 발굴 활발**

□ (인도) 한-인도 CEPA 효과 가시화

○ 인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관세 감축에 나서 **2010년에는 CEPA의 효과 미미**

○ 2011년 1월, 2차년도 감축 이후 수혜 범위 및 폭이 확대되면서 수출가격 경쟁력 지속 상승 전망

마. 유럽 [7.0% 증가]

□ 독·영·불 Big 3의 성장세 약화로 全유럽 경기 '10년과 유사한 수준 전망

○ 독일은 '10년 2분기 4.1%로 통독 이후 최고 성장세를 보였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전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건실한 성장세를 보임

○ '11년에는 **주요국의 재정긴축 조치가 본격화**되고, 세계경기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성장세도 둔화 전망

- **(영국)** '15년까지 정부예산의 25%(810억 파운드) 삭감 예정
- **(독일)** '11~'16년까지 연간 100억 유로 상당의 재정 감축안 시행

○ PIGS 국가 등의 **재정부실 지속으로 인한 위기요인 병존**

- **스페인**과 **그리스**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저조한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며, 최근 구제금융을 수용한 **아일랜드** 역시 EU 회원국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 PIGS 국가 경제성장전망(IMF) : (그리스) -4.0%('10) → -2.6%('11) / (스페인) -0.3%('10) → 0.7%('11) / (포르투갈) 1.1%('10) → 0.0%('11)

□ 유로화 강세 지속으로 수입 증가 전망

○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협상 결렬 이후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로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10년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에 기인한 **내수시장 성장에 환율 효과가 더해져 수입시장 여건 개선**

□ 경제성장세 둔화를 한-EU FTA 효과로 상쇄

○ 한-EU FTA는 '09.10.15 가서명 이후, '11.7월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공산품의 시장 진출에 관심 집중

* EU 공산품 관세 철폐 일정(품목수 기준 비중) : 97%(발효 즉시) → 2%(3년 내)→1%(5년 내)

- 자동차부품(관세율: 4.5%) 및 무선 통신기기 부품(2~5%), 평판 디스플레이(3.7%) 등 **한국 주력 수출 상품 가격 경쟁력 강화**

○ 특히 편직물(8%) 등 **고관세 품목의 신규 진출**도 기대됨

- 또한 적용 범위가 넓고 대표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은 LED, 리튬이온 배터리 등 **신성장 품목에서 FTA 효과 극대화 가능**

□ 국내기업의 중동부 유럽 투자 진출확대 및 조업호황

○ '04년 10개국 (폴란드, 체코 등) 및 '07년 2개국(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 이후 현대, 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의 현지진출 지속

- 구주지역 소비 회복에 따라 현지 한국기업의 **생산 및 신규투자 확대**

○ **대기업 동반진출 협력업체의 유럽 완성차업체 납품**에 따른 관련 수출 증가

- 최근 Y사(자동차부품)의 세르비아 생산시설 구축(고용효과 1,500명) 등

□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수출 확대 기대

○ 경제위기 및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동유럽 회원국의 도로건설, 항만, 터미널 등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가 '11년에 재개**될 전망

바. 북미 [7.9% 증가]

□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

○ **2% 대 경제성장** 전망

전망 기관	2009	2010	2011
미국 의회 예산 사무국	-2.6%	3.0%	2.1%
IMF	-2.6%	2.6%	2.3%
World Bank	-2.6%	3.3%	2.9%
OECD	-2.6%	2.6%	2.6%

○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이 경제 회복의 관건이나 **高실업과 주택시장 침체로 획기적인 개선은 난망**

- 6천억 달러의 추가 양적완화(QE2)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산업별 회복 속도 상이 : 한국기업 강세 분야 호황

○ 소비 정체에도 불구, **디지털 테크, IT가전 산업은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 회복세도 뚜렷

- 주요 제품과 함께, **부품 및 주변 제품 수요도 동반 상승**

□ (미국) 한국제품 인지도 상승

○ 불황기 **공격적 제품개발과 시장공략**으로 주력제품 이미지 대폭 개선

- 일본차 고전 속 현대·기아차 이미지 개선으로 판매 지속 상승
- 기존 휴대폰 이어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도 한국제품 호응

*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1>에서, 삼성제품 37개 혁신상 수상 예정

○ **한미 FTA 효과 기대**

- G20 정상회의에서는 불발되었으나 2011년 내 타결 전망 대세

□ (미국) 일본·중국 경합 품목, 환율 반사이익 전망

○ 일본과 경합관계 높은 **기계, 부품, 장비류의 엔고 현상에 따른 환율 수혜** 기대

- 원화 역시 강세이나 엔고 폭이 커 가격 경쟁력 강화

○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 소위 **'경계선'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수입선 전환 조짐**

□ (미국)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 본격 가동에 따른 시장수요 증가

○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산업, **고속철도 등 신규 인프라** 구축 및 **기존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착수에 따른 제품 수요 상승

<경기 회복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주요 변화>

[소비자 변화]

○ 새로운 미국 소비문화 '뉴딜컬처(New Deal Culture)' 정착

- 경기침체기 부상한 절약형·밸류형 소비패턴, 느린 경기회복 속 고착
- 더욱 파격적 '밸류'와 '딜' 찾는 소비패턴 정착 → '뉴딜컬처' 현상

○ 품목별 극심한 소비 편식

- 소비 정체 속에서도 품목별 소비지출 편차 뚜렷
- 절약 생활 유지 속 혁신 제품, 컨버전스 제품 구입 열광

ㅇ **모바일 경제, 쇼핑패턴 변화**
- 스마트폰, 태블릿 PC 확산으로 모바일 라이프스타일 일상화 급속히 진행
- 온라인 쇼핑 이용, 모바일쿠폰 사용, 인터넷상 제품 및 가격 비교 활성화

[기업 변화]

ㅇ **느린 회복기 구매패턴 변화**
- 소비 정체 극복하기 위한 보수적 구매패턴 심화 버전 재등장
- 소비 편식 공략하기 위한 히트제품 개발 집중

ㅇ **장기적 비전, 단기적 전략 구사**
- 모바일 경제, 그린 경제 등 미래사회 대응 위한 비전은 장기적으로 수립
- 불안정한 미국 및 글로벌 시장환경에 적응 위해 전략은 단기적으로 구사

ㅇ **글로벌 신흥시장 개발 박차**
- 글로벌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신흥시장 개발 필요성 절감
- 일시적인 수요 확보 차원 넘어선 미국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으로 진행

사. 일본 [3.6% 증가]

□ 2011년 경제성장률은 1.5% 안팎 수준에 머물 전망

○ 일본 중앙은행 2011년 경제성장률 1.5~1.9% 전망

- 엔고에도 불구, 해외경기 회복으로 일본 수출은 소폭 확대되면서 기업수익이 호전되고 설비투자, 고용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OECD, IMF 등은 재정적자 확대, 엔고 및 미국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주도형 성장 장애** 등으로 1.5~2.0%의 성장 전망

□ 개인소비와 디플레이션, 2011년에도 느린 회복 예상

○ 개인 소비는 2010년 대비 1.0% 이하의 증가 전망

- 친환경차량 구매 보조금의 종료('10.9), 가전 에코포인트 종료('10.12) 등 **정부 소비진작책의 종료가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
  * 아동수당(子供手手当て) 등 가계지원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디플레이션 회복 지연** 전망

- 일본중앙은행은 2011년 소비자물가지수가 2010년 대비 0.1% 상승하고, 2012년도에도 0.6%의 상승에 머물 것을 예측
  * 디플레이션 탈피 기준은 물가 1.0% 선 상승

□ **엔고 장기화에 따른 대일 수출 여건 개선**

○ **엔고 지속**으로 **한국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 엔고 장기화에 대해 일본 기업은 **해외거점 활용 및 해외조달 확대**로 대응할 계획으로, 우리 **부품소재 수출 기회 확대**
  * 닛산은 완성차 사상 최초로 내수용 차량 '마치' 전량을 태국에서 생산, 역수입
  * 혼다는 해외부품비율을 17%까지 확대된 피트(Fit)와 더불어 시빅(Civic)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도 해외부품 채용을 확대해나갈 방침

□ **한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대기업 완제품 일본 진출 가시화

- 삼성전자는 '10.10월 '갤럭시S'의 판매 개시, 일부 품귀현상
- LG전자는 TV 및 언론을 통해 대대적 광고를 실시, 공격적 마케팅 전개

아. 중동* [14.0% 증가]

* 북아프리카 국가 포함

□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성장세 지속**

○ **원유수요 증가** 및 **국제유가 상향 안정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지속으로 실질 GDP 성장률 상승 전망

-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 중동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 포인트 상승한 5.1%** 전망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부족으로 민간부문 성장 취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와 위험회피 경향**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미약

□ 新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른 진출 여건 개선

○ **저소득국**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소득국** 소비자는 **가치소비 추구** 경향 강화

○ **소매 유통망 확대** 및 **현대식 유통매장 증가** 추세

* '10년 두바이(UAE) 1인당 유통매장 면적은 2.3 s/m로 미국의 '05년 1.9 s/m를 상회

□ 인프라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 재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프로젝트 시장이 **금융시장 안정 및 국제유가 상승 전망**에 따라 다시 활기를 찾고 있음

- GCC 및 중동 주요국에서 계획·진행 중인 총 프로젝트 규모는 2.9조불로 전년대비 9.3% 증가했으며 취소·보류 프로젝트는 감소 추세

* UAE 9100억불, 사우디 6992억불, 이라크 3264억불, 이란 3189억불 등

○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강화**

- 과거 자체 재원에 의한 프로젝트 발주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발전, 담수,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PPP에 의한 추진사례 증가

- 대금회수 기간 장기화, 사업리스크 증가로 **수주전략 변화 요구**

□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증가에 따른 수출 기회 확대

○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고 풍부한 **태양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 성장 추구

- 2009년 6월에는 국제재생에너지(IRENA) 본부를 아부다비로 유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제조기지 허브화 지향**

-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설정, 동 분야 투자 대폭 확대 예상

*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2020년 총소비전력 대비) : 이집트 20%, 쿠웨이트 5%, UAE 아부다비 7% 등

* 주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UAE 마스다르 시티 프로젝트(187억불), 쿠웨이트 250MW 태양에너지 플랜트(6.5억불), 바레인 5MW 태양/풍력 하이브리드 플랜트 등

자. 아프리카* [13.2% 증가] *Sub-Sahara 지역만 포함

□ 고성장세 회복 전망

○ 아프리카 경제는 2000년 대 들어 금융위기 이전까지 5%대의 성장을 이어왔으며 **2011년 이후 다시 5% 이상의 성장세 회복 전망**

- 원유, 우라늄, 금 등 국제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상승 예상

□ 설비투자 증가 추세

○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남아공의 통신 분야 등 다수의 대형 M&A 거래 성사**에 힘입어 아프리카 지역 최대 투자 진출 대상지로 부상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AGOA), Everything But Arms(EBA) 등 **선진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및 무쿼터 혜택**을 누리기 위한 **효율 추구형 투자 증가세**

○ 철도, 항만, 전력 등 정부주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 남아공, 2012년까지 발전 및 송배전 분야에 460억불 투자 등

□ 소비패턴 변화

○ 중국산 등 저가제품에서 잦은 고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가격대비 품질을 고려하는 소비 패턴으로 변화추세**

- 미국 및 유럽 브랜드 제품 소비도 확산

○ **서구식 쇼핑몰 형태의 유통매장** 등장

- 토종 쇼핑몰인 shoprite(나이지리아) 등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매장 확산

□ '아프리카 리스크'가 수출확대에 제약 요인

○ 사회 인프라 건설, 정부입찰 계획 등의 **실제 이행률이 낮음**

○ **프로젝트 추진 시 개발재원 부족으로 공급자 금융요구**, 자금여력이 취약한 한국 업체 진출에 장애

차. 중미 [8.8% 증가]

□ 미국 소비시장 회복 지연의 영향

○ **임가공산업 중심, 높은 대미 의존도**로 특징지어지는 중미 경제의 특성으로 수입시장 수요는 제한적 성장 전망

- 단, **가전, 자동차 등 물류비용이 높은 제품**은 타 생산국에 비해 중미지역 소싱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 중고가 소비시장 진출 확대 전망

○ **유로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중고가 시장에서 수요 증가

-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자 인지도 향상으로 **향후 가장 큰 수출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저가 소비재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시장잠식이 심화, 섬유 및 직물류, 가전 완제품 등의 **한국상품 수요 감소 예상**

□ 공공 인프라 부문 한국기업 진출 확대 기대

○ 2010년 **파나마운하 갑문공사, 멕시코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중미시장에 대한 관심 확대 및 경험축적,

*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나 FTA 체결국 기업과의 콘소시엄 결성 등 수주방식 다양화로 극복 가능

○ 재정지출 확대책인 **대중교통 현대화, 지능형 교통망 도입, 친환경 전력망 구축** 등 공공 프로젝트 지속으로 관련 수입수요 확대 전망

카. 남미 [15.7% 증가]

□ 중산층 확대 및 자원·인프라 투자 증가로 고성장세 지속

○ '11년 남미는 세계 경제성장률(3.6%)을 웃도는 4.3% 경제성장 전망

○ **광업과 제조업이 고루 발달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성장세 견인

□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

○ 그간 보류·축소되었던 최대 투자국 **미국·EU發 투자 본격 회복 전망**

- 브라질은 '11년 외국인 직접투자 50% 증가(450억불) 전망

○ 우리기업의 對남미 투자확대로 관련 장비 및 부품 수요 확대

- 자원과 가전분야에 집중된 對남미 투자가 **자동차, 자동차부품, 중장비, 화학 등으로 다변화**

□ 중산층 확대로 내구 소비재 수요 증가

○ 고성장 지속, 외국인투자확대에 따른 고용창출로 구매력 대폭 증가

* 브라질 중산층(C계층) 비중이 2002년 43%에서 2009년 54%로 확대

○ 이에 따라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내구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과거 가격중심 구매 패턴에서 **품질과 디자인 중심으로 이동**

- 한편, 한국의 G20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 삼성·LG전자 등 대기업의 현지 생산 및 홍보 강화로 한국제품 인지도 향상

□ 건설시장 호황에 따른 장비 및 건자재 수요 확대

○ 경제 호황에 따른 **주택 및 호텔, 오피스** 등에 대한 수요 확대

- **(브라질)** 서민주택 200만호 건설 프로젝트, 2014 월드컵 및 2016 올림픽 개최 관련 호텔, 오피스 수요 큰 폭 확대
- **(아르헨)** '11.11월 대선 실시에 따른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 **(칠　레)** 도로, 주택, 학교 등 지진복구 프로젝트 지속

타. CIS [18.1% 증가]

□ 바이어 신규 오더 본격 회복세 전망

○ 내수판매 위축, 금융권 대출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현지 바이어 다수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신규 오더 및 취급 품목 확대** 추세

○ **금융권의 대기업대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무역금융 여건 개선

- 수출보험부보 미수채권 회수 증가 등 바이어 신용도 상승

□ 가격중시 구매 패턴 심화에 따른 기회

○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분야에서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요소가 강조**되면서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

○ 유럽산 제품을 중점 수입하던 바이어도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제품으로의 수입선 전환 확대**

- 단, 저가시장에서는 중국, 베트남산 등과의 경쟁 심화

□ 건설 부문 회복세 가속화

○ 국제 행사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 건설 프로젝트 확대로 **건축자재, 중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러시아)**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등
- **(우즈벡)**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철도, 고속도로, 상수도 등 인프라 조성
- **(우크라)** 나보이 경제특구 개발, 가스화학단지 건설, 의료기관 현대화 등
- **(아제르바이잔)** 가스전 등 신규 에너지개발 프로젝트 확대

□ 자동차 및 부품 수요 호조

○ 경기회복에 따른 신차 및 부품 수요 확대

○ **한국차 인지도 제고 및 구입금융 제공** 등으로 판매 지속 확대 추세

Ⅲ.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가. 종합

□ **자동차·부품 수출 대폭 증가 전망**

○ 선진국에서 **소형·중형 중심 신차 수요 회복** 및 **한국차 인지도 상승**, **對中 완성차 수출 본격화** 등으로 높은 증가세 시현 전망

○ 자동차 수출에 따른 **동반 호조**, 선진국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소싱 확대**, **한국 완성차 메이커의 해외생산 증가**로 부품 수출 호조

□ **프리미엄 제품 중심 IT 부품·소재 수출 확대**

○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IT 부품·소재류는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한국의 강세**, **신흥시장 수요 증가**로 호조 예상

○ **국제 시황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10년의 폭발적 수출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은 대폭 둔화 전망**

□ **원부자재, 에너지 부문도 호조**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전망, 글로벌 경기회복 지속, **신흥시장 가전·자동차·건설 수요 확대**에 힘입어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의 해외 수요 증가 지속 예상

□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류 부진 지속**

○ **한국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로 휴대폰, PC 및 주변기기 수출은 감소 내지 보합세에 그칠 전망

- 단,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국내생산 비중이 높아 감소세 둔화 기대

나. 기계류 [소폭증가]

○ **(선진시장)** 북미지역 제조업 경기의 점진적 회복 속에 **공장 가동률 상승**, 그간 지연되었던 **교체 수요 실현**으로 수요 증가

- 환율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엔고를 보이는 일본제품과 경합관계에 있어 원화절상의 부정적 요인 상쇄 예상
- 일본은 불황 장기화로 신규 투자가 억제되고 있으며, 엔고로 인해 제조업계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부진 예상

○ **(신흥시장) IT 부품소재 제조 관련** 신규 투자 및 R&D 활동 강화(대만),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일반기계, 금속공작기계** 가격경쟁력 상승(인도),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 증가 등으로 호조 전망

- 최대 시장 중국은 **중국 내 생산제품의 품질 상승**으로 대한 수입 수요 상승 제한적

다. 자동차 [대폭증가]

○ 세계 자동차 시장은 **신흥시장의 약진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 세계 자동차 판매는 8.8% 증가한 7580만대 예상(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선진시장) 현지생산 비중 증가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소형·중형 중심의 신차 수요 회복**, 공격적 마케팅과 연계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호조 전망

* 현대자동차의 (해외생산대수/전체판매대수) 비중이 2010년 최초로 50% 초과

- 단, 각국의 **자동차 구입관련 인센티브 종료**가 부진요인으로 작용

○ **(신흥 시장)** 중남미 지역 중산층 확대 및 현지화 강세, 對中 완성차 수출 본격화, CIS 지역 내수소비 회복세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 전망

- 對신흥시장 자동차 수출 증가세('10.1-10월) : 브라질 66.9%, 러시아 121%, 중국 92.4%, 사우디 31.8%, 칠레 92.7%,

* 對中 자동차 수출 추이(억불) : 8.2('07) → 9.5('08) → 8.9('09) → 12.8('10.1-10)

라. 자동차 부품 [대폭증가]

○ **(선진시장)** 북미 완성차 생산 증가와 **對Big3 납품 확대, 현지 현대·기아차 생산 호조**, 독일·일본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로 호조 지속

- 對미, EU **FTA 발효 시 대표적 수혜품목**
- 엔고로 인해 일본 자동차 기업은 해외생산 및 해외부품조달 확대

○ **(신흥 시장)** 對 중국, 브라질 **완성차 수출 급증**에 따른 동반 증가, 중동부 유럽 및 CIS 진출 **한국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의 투자 확대 및 조업 호조**, 인도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급증 등으로 대폭 증가 예상

- 경제위기 시 **차량 교체 지연**, CIS 지역 **차량 노후화**, 한국산 **중고차 수출 증가**로 A/S 부품 수요 증가

마. 평판디스플레이 [대폭증가]

○ 가전(家電)하향 정책에 따른 중국 LCD TV 수요 지속 증가, 동남아 진출 외자계 전자기업發 수요 증가, 중동부 유럽 진출 한국 전자기업의 생산 확대로 호조 전망

- **한-EU FTA 발효** 시 對유럽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現 관세율 3.7%)
- 일본은 '09년 개시된 **가전 에코포인트제 종료**('11.3월)에 따른 평판 TV 수요 감소로 부진 전망
- 중남미 진출 한국 전자기업은 대북미 수출 둔화를 **현지 판매 확대로 상쇄**할 계획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임

○ 최근 약세를 이어 온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는 4분기 저점 도달 후 '11년 초부터 개선될 것**이며(LG디스플레이 전망) 재고수준이 낮아지고 3D· LED TV 등 **신제품 도입이 확대**되면서 新수요 창출 예상

바. 반도체 [대폭증가]

○ 전세계 반도체 수요증가세는 2010년에 비해 대폭 둔화될 전망이며, **2011년 상반기 말 이후 시황 개선 예상**(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망)

- 단,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프리미엄 반도체**(스마트기기용 등) 부문에서 국내업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흥시장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우리 수출은 전반적 호조 전망

○ 반도체 현지 조달이 어려운 남미 지역, 인도의 전자제품 생산 급증, 스마트폰, 타블렛 등 새로운 전자기기의 확산이 호재로 작용

- 그러나 **2010년 반도체 수출이 1-10월 중 75.6%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임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1년 수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 전망

사.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소폭감소]

○ 휴대폰은 **해외생산비중 확대에 따라 수출 감소세** 지속

- 휴대폰(MTI8121) 수출 증가율 : 18.6%('08)→△18.0%('09)→△23.0%('10.1-10)
- 단, 최근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국내생산 비중이 높아** 감소세 완화 전망

* 미국 스마트폰 매출 2011년 50% 증가 전망

* 갤럭시S 품귀현상 발생 등 對日 단말기 수출 지속 확대

○ **신흥시장의 통신망 업그레이드, 국내업체의 통신장비 수주** 등으로 관련 무선통신 장비 수출 증가 예상

아. 가전 및 부품 [소폭증가]

○ **(선진시장)** 북미, 유럽 등에서 고급기술 가전제품이 시장수요를 견인하는 한편 IT 기술이 접목된 **'IT 가전' 시장 형성 본격화**

- 일본에서 중국 하이얼 제품이 호조를 보이는 등 **"일본제품 제일주의" 경향이 완화**되고 우리 대기업이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시장 확대 전망
- 그러나 소비회복 지연으로 수출 증가세는 제한적일 전망

○ **(신흥시장)** 중동지역 중산층 확대와 한국기업의 판매망 확충, CIS 지역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교체 주기 단축 등 호재로 작용

- 중남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V 부품은 북미 완제품 수요 둔화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자.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 [현상유지]

○ PC 주 수요처인 금융권 등의 **수요 회복 지연**, 국내기업의 모니터 등 **주변기기 해외 생산 확대** 등 전반적 수출 여건 부진

* 컴퓨터류가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속하락 : 8.5%('00)→5.0%('05)→1.9%('10)

- 넷북, 타블렛 PC 등 틈새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 예상
- 선진국 PC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확대로 對선진시장 수출 여건 악화

차. 섬유 및 의류 [소폭증가]

○ **(선진시장)** 북미, 유럽 시장에서 절약형·밸류형 소비패턴 정착 및 **바이어들의 보수적 구매패턴 확대로 수요 증가 제한적**

- 단, 유럽산 등 **고가품 대체재로 한국산이 부각**되는 경향도 나타남

○ **(신흥시장)** 베트남, 인니 등 동남아 현지진출 한국기업 수요 확대

- **섬유·의류 아웃소싱의 탈 중국화**도 대 동남아 섬유류 수출에 호재

카. 철강제품 [소폭증가]

○ **(선진시장)** 도요타의 POSCO 제품 도입 이후 일본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대폭 제고, 북미 진출 우리 자동차 기업의 철강판 수요 증가 등으로 호조 전망

○ **(신흥시장) 중국**은 **"4조 위앤 프로젝트" 마감단계 진입 및 부동산 개발투자 억제**로 수요 둔화 예상

- 반면 동·서남아 지역의 건설 투자 확대 및 자동차, 가전시장 성장, 현지진출 한국기업(POSCO)의 조업 확대가 호재로 작용

타. 석유화학 [소폭증가]

○ 유가 상승 예상, 신흥시장 산업구조 고도화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석유화학원료, 산업용 포장재, 생활 편의용품 수요 증가** 등으로 호조 전망

○ 각국의 건설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 등의 **주택건설 경기 억제·부진, 현지생산시설 확충**이 부진 요인

- 양안협력 관계 강화에 따른 대만의 대중 수출 증가도 불안 요인

파. 석유제품 [대폭증가]

○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發 수요 증가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유,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 예상

○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속, 신흥시장의 생산활동 확대 및 자체 공급 능력 부족으로 수요가 지속 확대될 전망

하. 선박류 [소폭증가]

○ 2008~09년 신규 수주가 대폭 감소했으나 09년 4/4분기부터 개선

- 해상 물동량 증가로 인도 지연도 점차 해소되면서 소폭 증가 전망

○ 해양 구조물, 관련 설비 및 부품 등의 수요도 점진적 회복세 전망

Ⅵ. 주요 품목 외 지역별 수출 유망 품목

가. 중화권

□ (중국)건전지 및 축전지(MTI 835)

○ '10년 1~9월 대중 수출규모 17.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2% 증가

- 자동차산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축전지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

□ (중국)플라스틱 제품(MTI 310)

○ '10년 1~9월 수출액이 1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

○ '09년 중국 플라스틱 소비량이 6천만 톤 초과, 전세계 소비총량의 25% 차지

- 건축업과 제조업 분야 사용이 확대되면서 수요 증가세 지속

□ (대만)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MTI 7362)

○ 글로벌 경기회복, 전자제품(소비재) 시장 호전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산 증대 및 장비 수입 급증

-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수입 급증으로 관련 부품 수요 확대

○ 2011년에도 중국 내수시장의 평판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와 양안 경협관계 심화로 대만 업체의 생산라인 보강 예상

나. 동남아대양주

□ (싱가포르) 녹색건물 자재 : (HS 2516, 6802, 6810, 6904, 7309, 7308, 9406)

○ 싱가포르 정부의 건물 녹색화 추진에 따라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 등 녹색건물 자재 수요 증가 기대

-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녹색화 추진을 위해 1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그린마크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

□ (싱가포르)LED 조명 (HS 854110)

○ 마리나 센터 및 중심상업지구 개발 및 조성에 따른 LED 조명 수요 증가

□ (인도네시아) 건설중장비부품(MTI 725130)

○ '10.9월 기준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73.5% 증가

○ 다수의 도로, 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발주로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용 부품 수출 유망

□ (인도네시아) 의약품(MTI 226200)

○ '10.9월 기준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16.7% 증가

○ 외국인 병원시설 조건부 투자 개방으로 제품 수요 확대 전망

□ (캄보디아) 화장품 (MTI : 2275)

○ 한국산의 가격대비 품질 인식 제고로 수요 증가 예상

- TV,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국 피부미인의 이미지가 퍼지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중저가 상품도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음

□ (캄보디아) 한류 콘텐츠

○ 음악, TV,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었으나, 최근 독점 배포 개념을 도입, 유료 구입 및 유통을 추진하는 바이어 움직임 확대

□ (미얀마) 화장품(MTI 227)

○ 한류 열풍으로 한국 TV 드라마 스타들이 미얀마 美의 기준으로 자리매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 증가

□ (호주) 광케이블 (HS 8544)

○ 인터넷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향후 8년간 430억 호주 달러(420억 미달러)를 투자하여 전국적인 광통신망 구축 예정

□ (호주) 복합비료 (MTI 234)

○ 2004년 이후 극심한 가뭄으로 경작면적이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 강우량이 크게 증가, 2011년 경작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임

○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로 곡물가격인상과 농업 투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비료가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뉴질랜드) 철도차량 (MTI 7441)

○ 2007년말 수주한 웰링턴 철도개선사업관련 철도차량 인도가 2011년 본격화 될 예정

□ (뉴질랜드) 전선(MTI 850)

○ 현지 국영송전업체인 트랜스파워사의 초고압선 지중화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일부구간 입찰에 성공, '11년 본격적인 납품 예상

- 현재 진행중인 제2입찰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음

□ (뉴질랜드) 광케이블 및 부분품 : (MTI 811310)

○ 정부가 추진중인 광통신망 확충계획(예산규모 36억 달러) 관련 2010년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고 2011년 이후 본격적인 케이블, 장비, 부분품 조달입찰 예고

다. 서남아

□ (인도) 전선 (MTI 850)

○ 송배전 분야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의 전력 사용량 증가로 고압 전선 사용 증가

- 최근 일진전기, LS 전선 등의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 (파키스탄) 의약품 226200(MTI 226200)

○ 2010년 여름 대홍수 이후 수인성 질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의약품 수입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 무정전 전원장치(UPS) (HS 85044010)

○ 일상적 전력공급 부족으로 Back-Up 전력 수요 크며 가정용으로는 고가의 발전기 보다는 소형 UPS가 선호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 군수물품 (HS 93)

○ 무기체계 노후화로 군 전력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한 방위비 예산 증액

- 무기류, 레이더 등 해난구조시스템, 구조선 등에 대한 정부입찰 실시 예정

□ (방글라데시) 항공장비 (HS 88)

○ 낙후 장비 교체수요 및 공항현대화에 따른 신규수요가 높음

□ (방글라데시)골판지 원지 (MTI 2527)

○ 수출용 박스제조에 필요한 골판지 원지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산을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

라. 유럽

□ (유럽) LED조명(826)

○ EU 차원에서 2012년말까지 모든 백열전구를 퇴출시킬 예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전구로 대체 불가피

- EU는 2009년 9월부터 100W 이상의 백열전구, 에너지라벨 F,G 등급의 백열전구, 75W 이상의 할로겐 전구 등 판매 금지

○ 영국은 공공부문 탄소배출 1년 내 10% 감축목표로 절전제품 수요 급증 예상

- 영국 최대 컨테이너항 Felixtowe 조명탑 LED 교체 계획, 삼성전기와 시범사업 진행 중

□ (유럽) 3D용 안경(MTI 9411)

○ 3D TV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3D 전용안경의 판매량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3D 방송을 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3D TV 및 방송 패키지 특판상품이 앞 다투어 출시
- 스페인의 경우, '13년까지 3D TV가 전체 스페인 시장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우리기업이 생산하는 3D TV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3D 안경 공급 또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

□ (유럽) 경보신호기 (MTI: 8142)

○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도난사고 빈발. 특히 휴가철의 경우, 장기 휴가자들을 겨냥한 전문 절도범 증가 추세

○ 고령화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스페인) 소형풍력발전기(HS Code 8502.31)

○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소형풍력발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신고 절차 간소화를 준비 중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2020년까지 약 10만 여개의 소형풍력발전기가 시장 내에 보급될 것으로 기대

마. 북미

□ (미국)철도 차량 부품(MTI 7442)

○ 철도 차량 부품 대미 수출은 지난 2008년 본격화, 2009년에 120%, 2010년 1-9월간 542%의 폭발적인 증가 기록

○ 정부의 대규모 철도 산업 투자로 인한 시장 확대

- 미국 연방정부는 올해 1월 80억 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을 11개 고속철도 및 운행 속도 개선 사업에 배정
- 역사 건설, 신호체계 개선, 선로 및 다리 보수 등의 철도 인프라 현대화 작업을 추진 병행

□ (미국) 태양광 솔라패널 (HS Code 854140)

○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 승인이 활발하며 소규모 프로젝트 증가세

- 최근 캘리포니아 정부 부지에 미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승인
- 거주용 및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태양광 솔라 패널 이용이 증가, 틈새제품으로 자리 잡음

□ (미국)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MTI 7322)

○ 반도체 제조용 장비 대외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 한국 반도체 제조용 장비 업체들의 품질 향상에 따른 미국 글로벌 기업 관심 제고

□ (미국)풍력발전 관련 제품(MTI 7290, HS 8502)

○ 한국제품의 수입 급증 및 미국의 그린산업 투자 증가 전망

- 미국 풍력시장은 2005년 이후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현재 37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
-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

○ 경기침체로 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늦춰졌으나 향후 관련 투자의 빠른 확대 전망

□ (미국)항공기 부품 (HS 8409)

○ 미국의 항공기 부품 수입은 '10년 1-9월간 47.0% 증가했으며 한국산 수입은 185.0% 증가

○ 항공기 시장 불황 여파로 미국 내 항공기와 부품 생산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회복 예상

- 보잉사와 Cessna의 생산이 2015년까지는 높은 수준 유지 예상

□ (미국)미용의료기기 (HS 901890)

○ 2012년까지 연평균 8.7% 지속적인 성장 예상되며 특히 가정용 미용의료기기 제품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됨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기가 늦춰지고 사회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미용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노령 소비층은 고가의 치료 및 기기 구입에도 적극적인 경향

□ (캐나다) 태양전지모듈 (HS 854140)

○ 2010년 8월 누계 기준, 태양광 모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2.5% 증가

○ 정부의 대대적인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

- 연방 및 각 주정부의 장려 정책에 힘입어 2011년까지 캐나다 태양광 발전 분야는 2007년 대비 40% 이상 성장 전망

- 2009년 온타리오 주는 북미 최고 수준의 전력 기준 가격 매입제도 (Feed in Tariff, 이하 FIT)가 포함된 Green Energy Act를 제정하여 태양광 발전에 대한 대대적 지원 체제 확립

- 삼성물산은 FIT 혜택 수혜를 위해 온타리오 주에 100MW 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와 모듈, 인버터 생산단지를 건립예정

□ (캐나다) 풍력발전용 AC 서보모터 (HS 850153)

○ 2000~2010년 캐나다 풍력 산업 규모는 연평균 38%씩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0 대비 2배 이상 확대 전망

○ 대용량 AC 서보모터는 Pinch System의 날개 회전에 사용되며, 각종 풍력발전 프로젝트 확대에 힘입어 수입규모 확대 추세

- 중소 규모의 여러 서보모터 업체를 보유한 한국은 산업용 서보모터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용 AC 서보모터 개발 및 수출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 전망

□ (캐나다) 하수처리장비 (HS 731010, 841320, 841370, 842119, 842121, 842129)

○ 캐나다 내 전체 3700개 하수처리 시설 중 25.6%가 개선 필요

- 연방정부는 시설 관할 지자체가 2040년까지 이를 모두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투자비용으로 60억 캐나다달러 책정
- 특히 해안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399개 시설은 위험도가 높아 2020년까지 개선 요구

바. 일본

□ (일본) 로봇 용 관련 센서 (HS 9503)

○ 초고령화 및 간호 인력 부족에 대한 해소책으로 고령자를 보조하는 인간형 로봇의 수요 증가

□ (일본) 터치패널 (MTI 839000)

○ 전자 칠판, 디지털 키오스크 단말, ATM, 타블렛 PC 등의 터치패널 채택율이 100%에 가깝고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디지털 포토프레임 등 AV기기에 대한 터치패널의 채택율 도 늘어날 전망

- 특히 2011년 이후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전자서적'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서적 관련 터치패널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

□ (일본) 애완동물 용품 (MTI 449090, 013600)

○ 일본 애완동물 관련 시장은 불황 장기화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지속, 2010년 관련 시장 규모가 4,217억엔으로 추산

- 초고령화 사회 지입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제고, 관련한 지출 증가와 보험 등 서비스의 다양화 진행

○ 애완동물 관련 시장 중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프리미엄 푸드로 2010년 시장규모는 560억엔으로 추산됨

사. 중동

□ (중동)교육용 기자재

○ 사우디, UAE, 카타르 등 GCC 국가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산업 투자확대

○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시스템 도입 활발

- 사우디는 열악한 교통여건에 따른 e-Campus 프로젝트 추진으로 전자교탁, 원격강의 관련 e-Learning 시스템 등 수출 유망
- 쿠웨이트는 700 여개 학교에 IT LAB 설치 추진

□ (중동) 의료기기 및 의약품 (MTI 733, 2262)

○ 중동 다수 국가에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요 대폭 증가 전망

- 쿠웨이트는 2016년까지 최소 3천 병상을 늘리고, UAE도 9천 병상을 추가할 계획
- 사우디는 병원 및 기초진료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
- 요르단은 의료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

○ 중동국가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제조업이 취약하여, 전통적으로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널리 유통

- 기후, 식생활의 영향으로 당뇨·고혈압·심장병·비만 관련 제품 수요가 높음
- 최근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들의 활발한 시장개척, UAE 한국병원 진출 등으로 한국산 인지도 상승

□ (중동) 건설중장비 및 관련 부품 (MTI 725, 712)

○ UAE (아부다비), 사우디, 리비아, 알제리 등 건설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건설중장비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시장조사기관 MEED에 따르면 2010.11월 기준 중동의 건설프로젝트 시장규모는 약 2.9조불로 집계됨
- 이라크의 재건사업 본격실시에 따른 수출 증가도 기대

○ 중동 건설중장비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의 점유율이 높으나 우리 건설업체의 활발한 현지 진출로 한국산 건설중장비 및 부품선호도 상승세

□ (중동) 전력 기자재 (MTI 84)

○ 산업다각화 정책추진에 따른 산업발전, 높은 인구증가세로 전력수요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장기 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운용 중

○ 발전플랜트 관련 기자재 및 변압기, 차단기, 송·배전 설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전선 케이블류 : 현지에서도 일부 생산되고 있고 영국, 미국 등 고가제품과 저가의 중국산 등 다양한 제품이 진입
- 열교환기 : 독일, 미국제품 위주에서 최근 한국산이 품질과 가격면에서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수출이 급증 추세
- 변압기 : 중국, 태국산 대비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 (중동)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 (826)

○ 모로코, 요르단 등 중동 석유 수입국은 전기요금이 비싸 에너지 절약형 선풍기, 전구 등 절전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가로등 등 공공시설 조명의 LED 교체가 활발히 진행

□ (중동) 공항 및 항만 기자재 (745, 746, 747, 812, 836 등)

○ UAE는 알막툼 국제공항 신설, 아부다비공항 확장, 칼리파항만 등 프로젝트들이 건설, 계획 중에 있으며, 사우디, 카타르 등도 공항, 항만 신설 및 확장을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탑승교, LED 디스플레이, APM(Automated People Mover), Baggae Conveyor 등 각종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큼

□ (중동) IT 서비스 및 S/W 설계

○ 중동의 IT서비스 시장이 산업다각화 추진과 맞물려 연평균 12%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중동 각국의 IT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효율적 활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IT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IT 서비스 관련 유망분야

- 금융 : 데이터센터 운영, 자동 온라인 신용체크, 암호화기술 등
- 통신 :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VoIP기반 애플리케이션, CRM 등
- 정부 : 수출입통계, 세관통관, 전자등록, 전자무역시스템 등
- 석유가스산업 : 재난방지, 화재감지, 가스누출감시 시스템 등

아. 아프리카

□ (남아공) 칼륨비료 (MTI 233)

○ '08년 이전 수입이 전무하였으나 '09년 17만불, '10.1-9월 46만불 규모 수입으로 급증세

○ 현지 외화수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차(茶) 재배에 상당한 화학비료 수요가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강우와 척박해지는 토양을 위해 비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남아공) 전력기자재 (MTI 84)

○ 남아공 전력공급 부족현상 심화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2012년까지 약 460억불 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

- 신규 발전소 및 변전소 건설, 송배전 설비 확충 등으로 동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변압기, 송전선 등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

○ 남아공 내에서 우리나라의 전력기자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가격대비 품질 면에서 고평가

- 주요경쟁국인 일본과 독일 통화의 상대적 평가절상으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큰 폭으로 개선
- 중전기기 시장은 전력청만이 아닌 현지 공장 및 광산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판매 가능

자. 중미

□ (중미) 보안장비(HS 8521)

○ 치안불안으로 인해 CCTV 및 DVR의 수입규모 꾸준히 증가

○ 범죄와 도난사고, 납치 증가로 위치추적장치(GPS) 수요 증가

□ (중미) 환자관찰장비 등 첨단의료장비 (HS 9018)

○ 파나마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지출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부문 투자 확대

- 공립병원 증설 관련 각종 첨단의료장비 및 의료기자재 수요 증가 예상

□ (중미) 전력기기 및 설비(HS코드 8504)

○ 송전설비의 노후로 인한 전력손실량이 크고, 요금징수시스템 등도 낙후되어 있어 해당 설비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음

차. 남미

□ (남미) 건축자재 (MTI 6132/6133/6134 등)

○ 남미 주요국 건설시장 호황으로 건축자재 수요 확대

- 브라질의 경우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200만호 서민주택 건설사업으로 건축용 강판, 플라스틱 창틀, 마감재, 유리, 시멘트 등 수출 유망

□ (남미) 타이어 (MTI 3203)

○ 중산층 확대에 따른 자동차 수요 확대 및 자동차 현지 생산 확대로 타이어 수요 급증

- 브라질의 경우 당분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고 헤알화 강세현상으로 타이어 수입수요 확대 전망

□ (남미) 전력기기 (MTI 8411,8423)

○ 경제성장 및 투자확대에 따라 전력분야 투자 확대 예정

○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주요국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확대로 풍력 터빈 수요 확대

□ (남미) 에너지효율제품(LED 등) (HS 8512, 8539, 8541)

○ 전력난 및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LED 등 절전형 제품 수요 확대

□ (남미) 보안기기 (HS 8521, 8523, 8525)

○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 주요국의 치안불안에 따라 보안기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부문 수요 급증

카. CIS

□ (러시아)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MTI 814, 950)

○ 경제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로서 유럽산 대비 한국산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

○ 일회용주사기,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소모품 수요도 지속 증가

□ (러시아) 식품 관련 산업, 식품 포장기기 (MTI 724, 016)

○ 식품 포장, 식품 설비, 식품 원부자재 산업 수입수요 증가

- 러시아 포장기기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러시아산 제품과 함께 유럽 및 중국 등 수입제품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

- 특히 포장용 필름 생산기계, 진공 포장기기, 플라스틱 발포 용기 생산기계 부문의 경쟁이 격심

□ (러시아) LED 조명 (HS 8541.40.100)

○ LED는 러시아에서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제품으로 기존 백열전등을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에너지 절약 노력 확대

○ 2009년 초 러시아의 LED 시장은 러시아 전체 조명기구 시장의 약 3.5%를 점유하였으며 2012년에는 7%까지 확대될 전망

□ (러시아) Heating floor(Heating film, heating cable 등)

○ 길고 추운 겨울과 함께 전력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특성상 동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

- 주택 리모델링 시 바닥 전체에 Heating system을 설치하거나 화장실, 목욕탕, 부엌 등 일부에 설치하는 등 보편화 양상을 보임

□ (러시아) 연초류 (MTI코드 0154)

○ 2010년 WHO(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1위 흡연율 국가로서 2010년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53.5%

□ (우크라이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MTI 814, 950)

○ 2010년 상반기 기준의약품 및 의료용품이 6위 수입품목에 오를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정한 중점 프로젝트에 산모 전문병원 건립 프로젝트가 포함되는 등 열악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많고 추가적인 잠재 수요도 높음

□ (카자흐스탄) 제지제품 (MTI 25)

○ 제지 산업이 전무한 상황이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고 정부가 제조업 육성에 전력하고 있어 제지용품 및 원료수입 지속 증가 전망

2010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세계시장의 기회와 위협	2010.1
10-002	CIS 레저시장, 이것이 대세!	2010.1
10-003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2010.2
10-004	2010년 세계시장의 뉴노멀 트렌드	2010.3
10-005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2010.3
10-006	독미 강소기업에게 배운다	2010.4
10-007	요르단, 중동의 의료허브 꿈꾸다	2010.4
10-008	요르단, 중동의 의약품 수출 교두보 된다	2010.4
10-009	불황을 이긴 세계시장의 우수 중기제품들	2010.4
10-010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2010.5
10-011	부상하는 아시아 유망 시장&산업	2010.5
10-012	미국 건강보험 개혁과 국내 업계 진출확대 방안	2010.6
10-013	글로벌 주요국 3D 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2010.6
10-014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서남아	2010.6
10-015	일본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2010.7
10-016	중국의 해외 M&A 사례와 시사점	2010.7
10-017	중앙아시아 건설중장비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0.7
10-018	러시아 산불 피해 동향 조사	2010.8
10-019	신흥시장의 알파기업에서 배운다	2010.8
10-020	태국 정부조달 이렇게 접근하라	2010.8
10-021	한-페루 FTA 활용 진출전략	2010.8
10-022	한-EU FTA 발효에 대한 EU 바이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반응 조사	2010.8
10-023	해외사례로 보는 모바일비즈니스 성공 비결	2010.10
10-024	인도 최대의 축제, 디왈리 특수 활용방안	2010.10
10-025	최근 원화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동향	2010.10
10-026	18억 할랄 시장을 잡아라	2010.10
10-027	인도의 반덤핑제재 현황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0.11
10-028	두바이 모라토리엄, 그 후 1년	2010.11

□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최근 대한수입규제전망과 2010 전망	2010.2
10-002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2010.3
10-003	G-20 출구전략 논의 동향 및 전망	2010.3
10-004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체결과 그 영향	2010.4
10-005	러시아 Skinhead 테러주의	2010.4
10-006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성공사례	2010.5
10-007	한국-러시아 앞으로 20년을 대비하라	2010.5
10-008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PIGS 국가별 변화 양상	2010.8
10-009	주요국 기업의 CSR 활동 사례	2010.11

□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중동의 미개척 시장 시리아	2010.1
10-002	오바마 취임 1년, 평가와 전망	2010.1
10-003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화와 시사점	2010.2
10-004	도요타 리콜 사태의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파급효과 분석	2010.3
10-005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 변화 동향 및 전망	2010.3
10-006	2010년 1분기 KOTRA-SERI 수출종합지수	2010.3
10-007	2010 美 USTR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0.4
10-008	2010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4
10-009	떠오르는 녹색강국 중국시장 집중조명	2010.4
10-010	일본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2010.4
10-011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심해유전개발 프로젝트 동향	2010.5
10-012	유럽발 경제위기와 진출기업 동향	2010.5
10-013	내전종식 후 1년, 스리랑카의 새로운 기회를 점검하다	2010.5
10-014	2010 콜롬비아 대선동향	2010.5
10-015	칠레 OECD 가입과 국내업계 시사점	2010.5
10-016	태국 시위사태 현황과 전망, 경제 파급 영향	2010.5
10-017	녹색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시장의 강소기업들	2010.6
10-018	일본 신성장전략 보고서	2010.7
10-019	2010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7
10-020	최근 세계시장 현황과 우리 수출시장의 특이동향	2010.7
10-021	이슬람 최대의 종교행사 라마단(금식월)과 비즈니스 시사점	2010.8
10-022	미국의 대이란 포괄적 제재법 발효에 따른,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2010.8
10-023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에 따른 주요국 시장 동향	2010.9

10-024	최근 엔고현상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동향	2010.9
10-025	디자인에서 '리'자인 시대로	2010.10
10-026	2010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10
10-027	美 환율법안 추진에 따른 국내업계 파급효과 전망	2010.10
10-028	일본 소비재 시장의 최신동향	2010.10
10-029	美 중간선거 결과에 다른 국내업계 시사점	2010.11
10-030	베트남 동화 평가절하와 국내 업계 영향	2010.11
10-031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0년 수출전망	2010.11
10-032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우리 수출시장 동향 점검	2010.11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KOTRA가 바라본 중국 성시별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전략	2010.2
10-002	세수로 보는 2010 중국경제	2010.4
10-003	KOTRA가 선정한 올해의 차이나 키워드	2010.4
10-004	상하이 엑스포 참가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4
10-005	상하이엑스포 이후 중국, 이렇게 바뀐다	2010.4
10-006	아시아, 대양주 녹색시장 현황 및 협력방안	2010.5
10-007	중국 내수 신흥유망시장 공략 설명회	2010.7
10-008	올해 중국 히트상품은 이것	2010.7
10-009	주목해야 할 중국의 2,3선 도시들	2010.7
10-010	중-대만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0.7
10-011	독일기업 사례로 본 중국시장 진출 전략	2010.10
10-012	10년의 대개발, Mega시장으로 떠오른 中 서부	2010.10
10-013	상하이 엑스포 200% 활용한 우리기업	2010.10
10-014	중국 온라인 시장, 빅뱅 마켓을 잡아라	2010.11
10-015	상하이 엑스포 국가브랜드 제고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11

□ FDI Them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PIIGS 국가 경제위기 동향 및 외국인직접투자 영향 분석	2010.2
10-002	글로벌 기업의 CVC 운영현황 및 투자동향	2010.3
10-003	글로벌기업의 일본내 사업 철수, 축소 동향 및 투자유치 시사점	2010.3
10-004	중국 위안화절상이 국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3
10-005	'10년 1분기 미국·일본·유럽 대한투자현황 및 향후전망	2010.6
10-006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010.6
10-007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0.7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중동 국부펀드의 동향 및 투자유치 전략	2010.10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지역별 진출여건	2010.1
10-002	2010年 1000大 수출유망상품	2010.1
10-003	캄보디아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북	2010.1
10-004	KOTRA 중장기 경영전략 G-LEAD 2020	2010.1
10-005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미국편)	2010.2
10-00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중국편)	2010.2
10-007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일본편)	2010.2
10-0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베트남편)	2010.2
10-009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2010.3
10-010	Living in Korea Q&A	2010.2
10-011	해외 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0.2
10-012	중동 · 북아프리카 비즈니스 & 문화 가이드	2010.2
10-013	[ITS]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4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5	[태양광]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6	2009 중국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7	2009 일본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8	중국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	2010.3
10-019	한-아부다비 비즈니스 포럼 종합 결과 보고서	2010.3
10-020	IPP(민자발전)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케냐)	2010.5
10-021	주요국 Smart Grid 정책/시장 조사	2010.4
10-022	'09년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0.4
10-023	그린리포트 (Vol 7. 2010 Spring)	2010.4
10-024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Network 2010	2010.4
10-025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유럽편	2010.4
10-026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미주편	2010.4
10-027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아시아/대양주편	2010.4
10-028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10.4
10-029	북미 온라인 대형 유통망 진출 전략	2010.4
10-030	2009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0.5
10-03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9	2010.5

10-032	러시아 건설시장 진출가이드	2010.5
10-033	중동 소매유통시장 공략포인트	2010.6
10-034	주요산업별 국가 투자유치 경쟁력 분석	2010.6
10-035	주요산업별 FDI 프로젝트 동향	2010.6
10-036	우리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지도	2010.6
10-037	SW수출강국도약-이스라엘성공사례분석	2010.6
10-038	2009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0.6
10-039	중동CIS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0.6
10-040	중동CIS 의약품 시장동향	2010.6
10-042	그린리포트(Vol 8. 2010 Summer)	2010.6
10-043	인도 주별 시장특성과 비즈니스 기회	2010.6
10-044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상)	2010.7
10-045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하)	2010.7
10-046	몽골 투자 가이드	2010.7
10-047	국가 및 산업 브랜드 맵	2010.6
10-048	20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결과보고서	2010.7
10-049	스위스 그린산업을 가다 2010	2010.8
10-050	국내주요기관 해외네트워크 2010	2010.9
10-051	2010년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10.9
10-052	주요국 통신시장 진출가이드(상)	2010.9
10-053	주요국 통신시장 진출가이드(하)	2010.9
10-054	주요국 IT부품시장 진출가이드	2010.9
10-055	주요국 SW.정보보호시장 진출가이드(상)	2010.9
10-056	주요국 SW.정보보호시장 진출가이드(하)	2010.9
10-057	주요국 10대 유망 소프트웨어	2010.9
10-058	2009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0.9
10-059	그린리포트(Vol 9. 2010 Autumn)	2010.10
10-060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2010.10
10-061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2010.11
10-06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0.11
10-063	2010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2010.11
10-064	해외진출종합가이드 (개정판)	2010.12
10-065	중동의 미개척 시장을 가다	2010.11
10-066	주요국 IT유통망 진출가이드	2010.11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0.1
10-002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10.1
10-003	“물류센터를 활용한” 북미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전략설명회	2010.3

10-004	세계 전력 시장 진출 설명회	2010.3
10-005	앞으로 5년, 미리보는 중국시장과 사업기회	2010.3
10-006	[ITS]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7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8	인도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성공전략	2010.3
10-009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3
10-010	GATEII 글로벌 바이오기술 투자세미나	2010.3
10-011	KOTRA 중남미클럽 창립 포럼	2010.3
10-012	2010 글로벌 채용박람회	2010.3
10-013	KOTRA-Alibaba 온라인 한국 상품관 설명회	2010.4
10-014	제 2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5
10-015	2010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0.5
10-016	GE 투자설명회	2010.5
10-017	Global Project Plaza 2010	2010.5
10-018	Global Project Plaza 2010 - Asia Session	2010.5
10-019	Solvay Venture Initiative	2010.6
10-020	인도 비즈니스 포럼 창립 세미나	2010.6
10-021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2010.6
10-022	중동CIS 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2010.6
10-023	중남미 클럽 2차 포럼	2010.6
10-024	<핵심고객 초청> 중남미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5	<핵심고객 초청> CIS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6	<핵심고객 초청> 인도.베트남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7	중남미 이러닝 진출전략 설명회	2010.9
10-028	Merck Venture Initiative	2010.9
10-029	KOTRA 중남미클럽 3차 포럼	2010.9
10-030	제 3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9
10-031	EU 상표 · 디자인 출원 설명회	2010.10
10-032	Global Marine Tech 2010 세미나	2010.10
10-033	제 2회 국제 카본 포럼	2010.10
10-034	한-EU 그린산업 컨퍼런스	2010.10
10-035	제 2회 한-덴마크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	2010.10
10-036	2010 한-중 지재권(IP) 보호전략 포럼	2010.10
10-037	북미 · 유럽 온라인유통 설명회	2010.10
10-038	Green IT: Display/LED 2010	2010.11
10-039	신시장, 신기회 미개척 전략지역 투자진출 설명회	2010.11
10-040	중국, 베트남 해외투자전문가초청 설명회 개최	2010.11
10-041	제 3회 해외진출지원기관 워크샵 개최	2010.11

Kotra Executive Brief 10-031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 수출전망

발 행 인 | 조 환 익
편 집 인 | 곽 동 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0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